

원저

蜈蚣에 대한 文獻的 考察

박소영 · 고강훈 · 소기숙 · 최희강 · 오희홍 · 김일두 · 박상준 · 안수기 · 김성철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침구과

Abstract The Bibliographic studies on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Wonkwang University Oriental Medical Hospital, Gwangju

Objective : Through the literature on the effect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 we are finding out the clinical possibility and revealing the more effective to untractable disease.

Method : We investigated the literatures of Oriental Medicine and experimental reports about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

Results : 1. The taste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 is hot, warm and toxic, and the effect is dispelling wind, spasmolytic action and detoxication so it has been used for C.V.A, facial palsy, numbness of hands and feet, wounds and arthritis.

2. A toxic constituent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 is mainly located in the 1st limbs, and we can prevent toxic symptoms, if taken a dosage moderately.

3. The pharmacological action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 is anti-convulsive action, analgesic action, lowering blood pressure, anti-inflammatory action, anti-tumor action and microbe inhibition.

On the study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 we thought it is effective to intractable disease, and it may be needed variable studies on toxicity and clinical effects.

Key words :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 dispelling wind, spasmolytic, detoxication

1. 서론

蜈蚣은 절족동물 다족류 중 왕지네과에 속하며, 陰濕한 곳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간혹 사람이 거주하는 곳까지 들어와서 咬傷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蜈蚣은 그 형상이 마치 사람의 척추처럼 마디마디 이어져

있고, 그 움직임이 신속한 고로 예로부터 민간요법의 하나로, 관절질환으로 인한 통증에 가루를 내어 먹거나 술에 타 먹음으로써 널리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蜈蚣에 관한 실험적 연구로, 홍¹⁾은蜈蚣의 약물학적 연구에서蜈蚣이 中樞性 痙攣抑制作用, 解熱鎮痛作用, 鎮靜作用 및 血壓下降作用 등이 있음을 구명하여,蜈蚣이 경축 및 痙攣性 질환에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정²⁾ 등은蜈蚣水鍼이 鎮痛 및 鎮痙效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醋酸으로 疼痛을 유발시키고 strychnine과 picrotoxin으로 경련을 유발시킨 후

※ 교신저자 : 박소영,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침구2과
(Tel: 062-670-6726 E-mail: acu21@hanmail.net)

실험 동물의 百會(GV20)와 太衝(LR3) 해당 穴位에 자극하여 관찰한 결과 모두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³⁾ 등은 蜈蚣의 熄風鎮痙하는 작용이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의 개선과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발성 고혈압 흰쥐에 경구투여 했을때, 蜈蚣이 renin-angiotensin계에 관여하여 angiotensin I을 angiotensin II로 전환시켜 강력한 순환혈관 수축물질로 작용하는 ACE저해 활성을 통한 것을 밝혀 蜈蚣이 항고혈압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고⁴⁾ 등은 臨床에서 蜈蚣藥鍼을 요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응용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

대개 지네(蜈蚣)나 두꺼비(蟾酥) 또는 附子和 같은 유독한 약물들은 사용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까닭에 기피되기도 하나, 최근 蜂毒을 이용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나 거머리를 이용한 관절질환 치료와 같이 '以毒治毒'의 방법으로서 유독한 약물들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蜈蚣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을 위한 일환의 하나로서, 역대 의서의 고찰과 최근에 실험적으로 보고된 蜈蚣의 藥理作用과 임상효과에 대한 논문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蜈蚣의 기원

蜈蚣은 절족동물 다족류중 大蜈蚣科(왕지네과)에 속하는 지네^{5,13)}로서, 홍¹⁴⁾은 한국산 蜈蚣의 형태학적 및 그 기원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이 노랑머리지네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임을 보고한바 있다. 흔히 石間 陰濕地의 낙엽하에 서식하는 *Scolopendra* sp.(지네)의 蟲體로 체구는 扁平細長하고 전체 길이가 5~6寸 정도로, 頭部 및 下面은 청갈색, 背部는 암녹색이며 전체가 많은 環節로 되고 각 環節마다 1대의 脚足이 있어 그 말단은 고리모양을 이룬다. 頭部에는 여러 개의 單眼과 1대의 鞭狀촉각을 갖는다. 天龍, 百脚, 噉高姆 등의 異名이 있다^{5,13)}

2. 蜈蚣의 문헌적 고찰

神農本草經에 “蜈蚣味辛溫 主鬼疰猛毒 敢諸蛇虫魚毒 殺鬼物 老精溫瘡 去三虫”이라고 최초로 기재되었다¹⁵⁾. 名醫別錄에는 療心腹寒熱積聚, 墮胎, 去惡血한다 하였으며¹⁶⁾, 日華諸家本初에는 癰癤과 蛇毒을 다스린다¹⁷⁾ 하였고, 本草綱目에는 小兒驚癇風搖, 臍風口噤, 丹毒禿瘡癩癧, 便毒痔漏, 蛇瘻蛇瘡蛇傷 등을 다스린다¹⁸⁾ 하였다.

3. 蜈蚣의 채집과 가공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각지에 多少 産하나 충북 괴산이 多産地로 유명하고¹⁹⁾, 중국에서는 江蘇, 浙江, 湖南, 湖北, 安徽, 河南, 陝西 등지에서 많이 난다⁶⁾.

4~6월에 잡아서 양끝을 뽀족하게 깎은 대나무 가지를 머리와 꼬리 두 부분에 꽂아 넣어 끈게 편 다음 벌에 말리거나 먼저 끓는 물에 데친 다음 꺼내어 햇볕에 말리거나 불에 쪄서 말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에 그늘지고 축축한 곳에 닭의 털이나 뼈를 파묻어 蜈蚣을 유인하여 산란, 번식하게 한 다음 이듬해 봄에 잡는다⁶⁾.

4. 蜈蚣의 성분

蜈蚣에는 蜂毒과 유사한 유독물질, 즉 histamine성 물질과 용혈성 단백질이 들어있는^{11,12,16,17)} 외에 지방유, 콜레스테롤, 개미산 등이 들어있다. 또 δ -hydroxylysine도 들어있고, histidine, arginine, ornithine, lysine, glycine, alanine, valine, leucine, phenylalanine, serine, taurine, glutamine acid등의 아미노산도 들어있다^{6,18)}. 동속 동물인 *Scolopendra morsitans* L의 혈의 단백질은 전기 영동에 의해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람의 혈청 albumin과 비슷한 것이고, 둘째는 α 1-globulin이며, 셋째는 α 2-globulin이고, 넷째는 γ -globulin이며, 다섯째는 단백질이 사람의 것과 다르다. 또 이 혈액은 fibrinogen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응고되지 않는다⁶⁾.

5. 藥性, 歸經, 禁忌

性은 溫有毒하고 味는 辛하며^{8,11,12,19)}, 肝經으로 들어간다^{11,12)}. <本草綱目>에 蝦蟆, 蝮蝮, 蜘蛛, 蝮蝮, 鷄屎, 桑皮, 白鹽을 畏한다^{8,12)}. <本草衍義>에도 蟾蜍를 꺼린다 하였⁶⁾. 辛溫하므로 貧血者, 體虛者, 燥渴者, 陰虛內熱者는

복용을 忌한다^{8,12)}.

6. 蜈蚣의 효능, 주치

<醫學衷中參西錄>에 蜈蚣은 走竄의 힘이 신속하여 內로 臟腑와 外로 經絡에 氣血이 응체한 곳이 모두 능히 開하고, 微毒이 있어 毒을 善解^{6,12)}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內로는 肝風萌動, 驚癇眩暈, 抽掣瘈瘲 小兒臍風을 外로는 經絡中風, 口眼喎斜, 手足麻木등을 다스리며, 蠅을 제압하므로 蛇證과 蛇咬中毒을 다스린다⁶⁾고 하였다. 蜈蚣은 頭尾가 모두 赤紅色으로 南方의 火毒의 性을 띠고 있으므로 능히 陰毒을 공격할 수 있다⁹⁾고 하였다.

(1) 去風, 鎮痙, 解毒¹³⁾하므로, 急晚驚風, 破傷風에 사용한다. 蜈蚣은 通經絡하여 熄肝風 하며, 肝風이 제거되면 驚厥은 저절로 그치므로 去風解痙의 효능이 있다. 급만 경풍과 파상풍으로 痙攣 抽搐 角弓反張 등이 나타날 때 全蝎, 白僵蠶, 釣鉤藤과 배합하여 응용하는데¹⁴⁾, 經驗方의 止痙散, 證治準繩의 撮風散, 太平聖慧方의 萬金散, 醫宗金鑑의 蜈蚣省風散 등이 그것이다⁶⁾.

(2) 外用으로 瘡瘍腫毒, 癩癧潰爛 등에 사용한다. 蜈蚣은 解毒의 효능이 있으므로 蜈蚣을 鹽沈油와 섞어 기름을 小兒毒瘡에 비빈다. 차잎 가루와 같이 붙여 潰爛을 다스리는데¹⁵⁾, 拔萃方의 不二散, 新方의 結核散, 經驗方의 癩癧散, 外科進展의 蜈蚣散 등이 있다⁶⁾.

(3) 蜈蚣은 通絡止痛의 효능으로 全蝎과 함께 防風, 獨活, 威靈仙 등 去風, 除濕, 通絡 약물들과 써서 風濕痺痛, 流走不定, 痛勢極烈 한데에 사용한다^{6,16)}. 또한 蜈蚣은 古本草書에 기록된 바는 없으나, 辛溫純陽之品으로 性善走散 通經消瘀 氣血達而陽事興 하므로 陽痿에 응용할 수 있다²⁰⁾.

7. 실험으로 증명된 藥理作用

1) 中樞抑制作用

지네수액은 小鼠의 활동을 감소시키거나 오히려 움직이지 않게 하고, 劑量을 증대하면 활동이 감소되는 것 이외도 翻正반사가 소실된다. 이로써 유효량은 3.35g/kg이다. 粗毒은 小鼠에 대해 먼저 흥분시킨 후 호

흡 마취하는 작용이 있다. 지네는 건조한 全蟲의 藥理作用과 粗毒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²⁾.

2) 抗驚厥作用

蜈蚣과 全蟲은 단독으로 응용시에 抗驚厥作用이 있는데, 그 抗士의 驚厥을 그치게 효과가 매우 현저하다. 다만 이 둘을 비교하면, 蜈蚣이 全蟲에 비하여 현저하다²¹⁾. 小棘巨蜈蚣과 墨江蜈蚣이 驚厥을 안정시키는데 뚜렷한 대항작용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蜈蚣의 鎮靜作用은 주로 脊髓에 작용한다²²⁾.

止痙散(全蝎, 蜈蚣)은 1일 1g씩 1, 3, 9일 연속 경구 투여한 후 pentylenetetrazol (cardiazol), strychnine, pure nicotine의 반수 경련량에 의하여 나타난 마우스의 경련에 대해 鎮靜作用을 나타냈다. 동량을 투여할 경우에 상술한 3종의 약물에 의한 경련에 길항하는 효과는 蜈蚣이 全蝎보다 높았지만, 염산 코카인성 경련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다^{6,7)}.

3) 鎮痛作用

蜈蚣을 위에 주입하여 扭體法으로 측정했을 때 小鼠의 鎮痛率은 53%, 熱板法으로 공급후 2시간에 최고 50%였고, 작용은 4시간이상 유지되었다²³⁾.

4) 심혈관계통에 대한 작용²⁴⁾

(1) 심방에 대한 작용

蜈蚣에서 수용성단백을 제거한 액(이하 402액)에서 분리해낸 모르모트의 심방표본에 대하여 일정 劑量의 범위내에서는 심근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고, 그 중에서도 쇠약해진 심장수축력에 대한 증강작용이 뚜렷하였다. 大劑量에서 증강작용이 있으나, 수축력이 약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심근수축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심방근육의 자발빈율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2) 降壓作用과 기전

402액을 마취한 개의 대퇴정맥에 공급했을 때 뚜렷한 강압작용을 나타내고 劑量을 늘임에 따라 증강되었다. 그 강압작용과 부신 α, β 수용체와는 무관하다. atropine은 402액의 강압작용과 M수용체와는 무관하였다. Dyphenhydramine 阻滯는 H수용체와 무관하며, 절단

한 양측미주신경은 강압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

(3)혈관관류에 대한 영향

402액은 蟻醣의 하지 혈관관류량을 현저히 증가시켜 직접 혈관을 확장시키고, 작용은 15~20분간 유지된다.

5) 抗炎症作用

蜈蚣을 口服하였을 때 巴豆油로 일으킨 小鼠의 귀 종창에 대한 억제율은 38%였고, carrageenin성 大鼠 관절 종창과 포름알데하이드성 大鼠 아급성 관절종창 및 大鼠의 adjuvant 다발성 관절염에 대해 서로 다른 정도의 억제작용이 있고, 종창조직 중 prostaglandin E₂의 함량을 뚜렷이 감소시켰다. 그러나 어린 大鼠에 연속해서 약을 주었을 때 부신과 흉선의 重量에 영향은 없었다. 히스타민과 5-히드록실아민 매개로 생긴 大鼠 족과관절종창에 또한 뚜렷한 억제작용이 있었다²⁹. 蜈蚣액이 大鼠의 한천성 관절염에 뚜렷한 억제작용이 있다. 大鼠 傷으로 일어난 피부수종이나 혈관삼투성 증가에 억제작용이 있다. 대서의 carboxymethyl cellulose로 일어난 백혈구의 복강내 유주에 있어 특히 현저하게 억제작용이 있다³⁰.

6) 면역기능에 대한 영향

蜈蚣을 건조한 현탁액을 小鼠의 위에 주입했을 때, 高低劑量은 모두 小鼠의 복강 대식세포의 탐식능력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 아울러 대식세포의 Fc수용체를 활성화시켜 小鼠의 超敏值(DHR)를 저하시키고 면역기관 重量을 감소시킨다³¹. 高低劑量을 7일동안 위에 주입한 결과 혈청 sheep red blood cell 항체를 측정할바 蜈蚣은 비교적 低劑量에서 항체생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高劑量에서는 현저히 항체생산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³². 재발성 구강궤양 환자에게 蜈蚣沖劑를 口服케 하였다더니, 혈청 IgG와 E rosette 형성율이 높아져 타액중의 IgG, IgA가 정상인보다 높았다³³.

7) 抑菌作用

蜈蚣의 물 추출물(1:4)은 in vitro에서 홍색백선균, 황선균, Microsporium andouini(오즈앙씨 소포자균), 표피선

균, 착색아선균 등의 피부진균에 대하여 각기 다르지만 억제 작용을 한다^{67,30}. 중국산 小棘巨蜈蚣과 墨江蜈蚣 油脂로 만든 것에는 治病性球菌과 杆菌을 억제하는 작용이 없었다. 두 가지의 水液은 金黃색포도구균과 대장간균에 약한 억제작용이 있다. 각종 治病性真菌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抑菌作用이 있다³⁰.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의 산성 액체는 治病性真菌에 비교적 강한 작용이 있으나, 염기성 액체는 억제효과가 좋지 않음이 밝혀졌다. 동시에 두 가지는 1/400의 농도에서 양모상포자균, 석교양모선균과 홍색표피선균 등에 抑菌作用이 있으며, 1/800의 농도에서도 일정한 抑菌作用이 있으니, 抗真菌作用이 확실함을 나타낸다. 다만 살아있는 蜈蚣과 독소에는 抑菌作用이 없다³¹. 체외 억제시험에서 밝혀졌듯이 小棘巨蜈蚣과 日本棘蜈蚣의 에틸알콜, 에틸에테르를 취한 액은 포도구균, 八疊杆菌, 綠膿杆菌, 白色念珠菌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³². 蜈蚣을 주료한 結核散의 三種을 취한 액은 3%초산과 희석한 에틸에테르 용액 제제중에서 結核杆菌에 대한 억제작용이 비교적 좋았으며, 2%탄산수소나트륨용액이 그 다음이었으며, 蜈蚣분말과 수액은 작용이 없었다³³.

8) 抗癌作用

蜈蚣製劑는 小鼠의 肉瘤, 艾氏腹水癌, 瓦克癌 등에 억제작용이 있다^{34,35}. 체외실험에서 인체간암세포 호흡을 억제하였다. 인체 간암세포와 위암세포에 대한 美藍法도 효과가 있었다. 復水腫瘤細胞에 대한 伊紅法에서 억제작용이 있다³⁶. 蜈蚣水蛭주사액은 암세포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다³⁶. 蜈蚣水蛭주사액을 흰생쥐에게 쓴 결과 정원세포가 과사되거나 소멸시키며 종양 세포에 대한 억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죽은 암세포가 저농도의 eosin에 쉽게 염색되는 특징을 이용한 체외실험에서 蜈蚣과 水蛭의 주사액은 암세포에 대한 흥염색에서 양성을 보여주었다. 化癌丹(昆布, 海藻, 龍膽, 全蝎, 蜈蚣, 시기초로 炒한 大米 등이 들어있다)³⁶은 흰생쥐의 腹水癌에 대하여 억제작용을 나타냈으며, 약물을 사료에 혼합하여 주는 것보다 효과가 좋았다³⁷. 蜈蚣提取物은 동물이식성 腫瘤에도 작용이 있다. 小棘巨蜈蚣과 墨江蜈蚣의 수제액의 체외 폐암세포에 대한 작용은 없다³⁸.

9) 기타작용

蜈蚣(S. moristuns)의 毒質提取물은 토끼 소장에 대해 초기에는 억제하다가 계속되면 현저히 흥분시키고, 최 후에는 장시간동안 억제한다. 또한 잉태하지 않은 토끼 자궁에 대해서는 이완작용이, 잉태한 자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축을 억제하며, 토끼의 고혈당증을 일으킨다. 日本棘蜈蚣의 毒質提取液은 히스타민 유사작용과 용혈작용이 있다³⁷⁾.

8. 부작용 및 毒性, 解毒

왕지네의 독은 산성으로, 꿀 생리적 소금물, 글리세린 수용액에 쉽게 풀리며, 알콜, 에테르, 알칼리에는 알갱이 모양의 앙금을 형성하면서 파괴된다. +80℃에서 15~20분 동안 끓이면 파괴되어 앙금이 생기고, 0~-30℃에서는 파괴되지 않는다. 독에는 단백질, 물, 염이 들어 있으며, 헤모리진, 세로토닌, 히알루로니다제, 히스타민이 들어 있다³⁸⁾.

楊³⁹⁾은 長服하면 위장점막에 자극을 주어 惡心, 嘔吐, 腹部絞痛 혹은 便血 등을 일으킨다 하였고, 余³⁹⁾는 지네를 복용하면 복부와 하지에 흥진 및 소양이 나타나거나 전신에 속립상의 흥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지네를 장기간 쓰면 간세포에 손상을 주고, 10마리 이상을 한꺼번에 쓰면 온 몸에 붉은 반점이 돋는데 무릎에 더욱 많으나, 약쓰기를 멈추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였다.

1) 毒性

(1) 지네의 毒性: 서로 다른 종류의 지네의 毒性은 각기 다르다. 5종 지네의 毒性을 측정한 결과 小鼠에 대한 반수치사량은 顎足의 수에 달려있다. 정맥주사시 0.030~0.160, 근육주사는 0.07~1.2였다⁴⁰⁾. 국산 小棘巨蜈蚣의 毒은 小鼠의 복강주사에 반수치사량은 22.5mg/kg으로서 중등정도의 毒性을 나타낸다. 다른 보도에 의하면 小棘巨蜈蚣과 墨江蜈蚣의 반수치사량은 100mg/kg였다²⁶⁾.

(2) 蜈蚣毒의 존재부위는 주로 제1顎足の 분비물 중에 있다. 이외에도 胸內와 꼬리의 基板에도 대량의 腺體가 있어 독의 한 부분이 된다. 蜈蚣이 사람을 물 때

매번 배출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⁴⁰⁾.

(3) 商品蜈蚣의 毒性은 小棘巨蜈蚣의 水溶性去蛋白液을 小鼠에게 口服했을 때 반수치사량은 9.90g/kg, 복강주사시 6.66g/kg이다^{24,41)}. 건조蜈蚣을 달인 것을 小鼠 피하주사시 반수치사량은 7.67g/kg이었다²⁾.

2) 中毒의 기전과 증상

蜈蚣毒의 주된 것은 단백질이다. 독소는 심장의 움직임을 멎게 하고, 혈관수축과 아울러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대시켜 小鼠의 호흡을 멈추게 한다. 또한 蜈蚣毒은 주로 신경절에 작용한다²⁶⁾.

3) 中毒 원인과 예방⁴⁰⁾

商品蜈蚣의 毒性은 매우 낮지만, 용량을 과다하게 하면 중독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고도로 과민체질에는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중에도 生蜈蚣을 사용하면 쉽게 나타난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용량을 지키고, 大劑量을 내복시에는 일반적인 량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用量은 1푼 내지 2푼을 頭尾를 제거하여 散劑나 丸劑로 만든다³⁾. 煎服時에는 1~3g, 研末하여 沖服時에는 매번 0.6~1g을 쓰며, 外用時에는 적량을 사용한다¹⁰⁾. 1.5~4.5g을 사용하기도¹⁰⁾ 하나 그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4) 中毒治療

本草綱目에는 蜈蚣에 물리면, 蝸牛 蛞蝓, 烏雞屎, 五靈脂, 獨蒜, 薑薑子油, 蛇含, 香附嚼, 莧菜, 馬齒莧, 菩薩草, 人蔘, 蚯蚓泥, 胡椒, 茱萸, 棟葉汁, 生薑汁調蚌粉, 桑根汁, 雄黃, 井底泥, 食鹽, 生鐵磨醋, 耳塞, 苦蔘, 地上土, 尿坑泥, 城東腐木漬汁을 함께 바른다. 또 鷄血藤을 바른다⁴²⁾ 하였다.

(1) 一般療法¹⁰⁾

지네에 물리면 바로 비눗물, 3% 암모니아수나 5% 탄산수소나트륨용액으로 상처부위를 씻는다. 0.25%~0.5% procaine으로 상처 주위를 묶는다. 통증이 심하면 morphine을 주사하고, 심장박동이 많이 느리면 atropine 등을 근육 주사한다. 호흡순환이 힘들면 중추흥분제, 강

심제와 혈압을 끌어 오리는 약을 사용한다.

(2)中醫療法¹⁰⁾

지네에 물렸을 때, 다음 藥중 하나를 고른다. 신선한 白蘆豆汁, 신선한 蒲公英, 魚腥草, 토란을 찢어서 붙인다. 내복약으로는 ①茶汁 적당량을 자주 마신다. ②鳳尾草 120g, 銀花 90g, 甘草 60g을 물에 달여서 먹는다. ③馬錢子 가루 0.6을 물에 개어서 마시고, 病情에 근거하여 3 시간 후에 다시 한차례 먹는다. ④桑白皮, 蚯蚓 적당량을 달여서 먹는다.

9. 修治

<雷公炮製論>에 蜈蚣을 약용할 경우에는 먼저 톱밥이나 버드나무의 쯤가루와 함께 도자기 그릇에 초하여 톱밥이 검게 되면 蜈蚣만 꺼내어 머리와 꺾질을 제거하고 쓴다하고, <本草綱目>에서는 불에 구워 머리와 발을 버리고 쓰거나 꼬리와 다리를 제거하고 薄荷葉에 싸서 구워 쓴다¹¹⁾고 하였듯이, 炙하여 頭, 足, 尾를 제거하고 사용하거나 尾尾를 제거하고 薄荷葉에 싸서 炙하거나 酒炙하여 사용¹²⁾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끓는 물속에 넣어 죽이고 햇빛에 말리거나¹³⁾ 生用, 혹은 酒洗用 혹은 研末로 하여 사용¹⁴⁾하기도 한다.

蜈蚣은 性이 有毒하므로 일반적으로 頭足を 제거하여 사용^{15,16)}하지만, 김¹⁵⁾의 실험에 의하면 頭足を 제거하면 鎮痛과 消炎作用이 증대하고, 頭足を 제거하지 않으면 神經作用에서 효능이 증대한다고 하였다.

III. 결 론

蜈蚣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蜈蚣의 性味는, 辛, 溫, 有毒하며, 藥效는 去風, 鎮痙, 解毒하여 中風, 口眼喎斜, 手足麻木, 瘡瘍腫毒, 關節炎 등의 질환에 응용되어 왔다.
2. 蜈蚣의 毒은 주로 제 1頭足에 있으며, 藥量을 조절하면 中毒症狀을 예방할 수 있다.
3. 蜈蚣의 藥理作用은 鎮痙作用, 鎮痛作用, 降壓作用,

抗炎作用, 抗癌作用, 抑菌作用 등이 있다.

실험으로 증명된 蜈蚣의 藥理作用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폭넓게 응용한다면, 다양한 만성 또는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毒性 및 임상 효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1. 홍남두. 경희약대논문집. 1977; Vol 5:20-27.
2. 정병태, 장경진, 송춘호, 안창범. 蜈蚣수침이 진통 및 진경효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997; 14(2):219-230.
3. 이동희, 김호철, 안덕균. 蜈蚣의 항고혈압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997; Vol. 12(2):39-49.
4. 고강훈 외, 오공약침을 이용한 요추간판탈출증 치료의 임상적 연구, 대한약침학회지. 2002;4(3):47-57.
5. 陸昌洙 외 8인. 한국본초학. 계축문화사. 1981:412-413.
6. 김창민, 신민교, 이경순, 안덕균. 중약대사전. 정담. 1998:3919-3923.
7. 고순구. 약물독성학. 여강출판사. 1993:243-249.
8. 신길구. 신씨본초학. 수문사. 1973:297-298.
9. 신민교. 임상본초학. 영림사. 1986:665.
10. 고학민 주편. 중의약학교급중서. 중약학(하). 인민위생출판사. 2000:1457-1465.
11. 상해중의학원. 중초약학. 상무인서관향향분관 출판. 1975:347-348.
12. 이상인. 본초학. 수서원. 1975:239-240.
13. 時逸人편저. 중국의약총서. 중의약물학. 대연국풍출판사. 404-405.
14. 홍남두. 생약학회지. 1975; Vol6.:137.
15. 이시진. 본초강목(하). 인민위생출판사. 1982:2345-2349.
16. 하지광. 신중국한의학. 대구. 용성출판사. 1995:270-271
17. 이상인, 신민교 외. 한약임상응용. 서울. 성보사. 1990:441-442.
18. 陰健. 中藥現代研究與臨床應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5:370-371.
19. 장은엄, 섭천사, 진수원 공저. 본초삼가합주. 의도한국사. 1976:13.

20. 張村生. 百藥效用奇觀. 中醫古籍出版社. 1987:87-88.
21. 顏行伍 等. 中醫雜誌. 1960;6:39.
22. 遲程 等. 雲南中醫學院學報. 1992;15(1):23.
23. 王玉勞 等. 中醫藥理通訊. 1992;9(3):8.
24. 徐昌瑜 等. 中醫藥理與臨床. 1985;창간호. 125.
25. 趙秦 等. 全國首屆藥物資源開發研討會論文滙編. 1992;289.
26. 遲程 等. 雲南中醫學院學報. 1992;15(1):25.
27. 張金芝 等. 中國藥理通訊. 1992;9(3):56.
28. 沈大躍 等. 天津藥學. 1993;5(1):30.
29. 常志行 等. 解放軍醫學雜誌. 1987;12(5):372.
30. 曹仁烈 等. 中華皮膚科雜誌. 1957;(4):286.
31. 秦非 等. 中國民族民間醫藥雜誌. 1995;(15):13.
32. 章乃榮 等. 中藥學. 1986;17(12):11.
33. 周顯章. 哈爾濱中醫. 1960;(11):54.
34. 駱和生 等. 新中醫. 1978;(3):39.
35. 抗癌本草. 常毅敏. 서울, 바람과물결, 1992:446.
36. 熊付良. 時珍國藥研究. 1991;2(3):134.
37. 江猷 等. 科學通報. 1985;30(3):218.
38. 楊更生. 蟲類藥的不良反應與防治. 新中醫. 1989; 8:52-54.
39. 余聖龍. 生蜈蚣致過敏. 中國中藥雜誌. 1989:56.
40. 楊倉良 等. 毒藥本草.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721.
41. 徐昌瑜 等. 中醫藥理與臨床. 창간호. 1985:124.
42. 李時珍. 本草綱目(下). 人民衛生出版社. 1982:350.
43. 李尙仁. 本草學. 서울, 수서원. 1981:239-240.
44.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일증사. 1991:2347.
45. 김중희 외. 蜈蚣의 鎮痛, 消炎, 鎮痙 및 解毒作用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4(2). 1993: 381-393.